



국민의힘 의원 및 당직자 장애인식개선 가이드북

장애감수성 향상을 위한
장애인식개선 가이드북



발간사



사무총장 권성동

안녕하십니까, 사무총장 권성동입니다.

장애인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각종 제도와 정책 마련에 힘쓰고 있는 정치인들이 정작 그 발언에는 부적절한 표현으로 상처를 드리는 사건이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치인의 부적절한 용어 사용은 대부분 장애인을 비난하거나 낮추려는 의도보다는 잘못된 용어 습관에서 비롯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정치인은 늘 이슈의 중심에 있고, 말 한마디의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신중함이 요구됩니다.

이런 노력의 일환으로 우리 국민의힘은 주기적으로 전문가를 모셔 장애인 인권과 인식 개선을 위한 심층 강의를 들으며 교육받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버리고, 장애인에 대해 올바르게 이해하며,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한 많은 방법들에 대해 논의하고 배우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정치인과 같은 공인의 혐오표현은 다른 국민들에 비하여 더 넓

게, 더 빠르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고, 그 파급효과도 큼니다. 따라서 정치인의 잘못된 발언은 그 표현의 대상이 되는 구성원이 느끼는 상처와 공포감을 보다 크게 만들 것입니다.

사회 소외계층에 대한 인식개선은 정치인의 소명이기도 합니다. 정치인의 잘못된 발언을 방지하는 노력과 함께 정치계의 언어습관을 바로잡고 대안을 제시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에 우리 국민의힘은 정치권에서 반복되는 장애인에 대한 부적절한 표현을 방지하고자 장애감수성 향상을 위한 장애인식개선 자료를 마련했습니다. 자료 감수를 도와주신 많은 장애인단체 관계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장애인식개선 자료를 통해 잘못된 용어의 습관이 개선되어 장애인에 대한 부적절한 표현이 더 이상 발생되지 않기를 바라며, 지속적이고 정기적인 교육을 통해 국민의힘 소속 의원과 당직자의 장애감수성을 높ی겠습니다.

또, 최근 국민의힘 제20대 대통령선거 중앙선거대책위원회에서는 대통령후보 직속으로 ‘약자와의 동행위원회’를 꾸려 사회활동가들과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뿐 아니라 다양한 계층의 아픔에 공감하고 사회적 인식 제고를 위한 대안 제시에 끊임없이 힘쓸 것입니다.

앞으로도 국민의힘은 장애인을 비롯한 사회 소외계층의 인권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사



중앙장애인위원장 국회의원 **이종성**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민의힘 중앙장애인위원장 이종성입니다.

「장애인식개선 가이드북」의 발간을 축하드립니다.

그동안 많은 정치인들이 의도치 않게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하여 많은 장애인과 장애인가족들에게 상처를 드렸습니다. 이는 부주의한 탓 이기도 하지만 평소에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매우 부족한 것이 큰 이유가 될 것입니다.

장애인에 대한 부적절한 표현은 여와 야를 가리지 않고 매년 반복되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재발방지 약속을 내놓지만, 실제적인 대책은 이뤄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그동안의 많은 실수를 앞으로는 반복하지 않기 노력해

왔습니다. 지난 3월 우리 당 소속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장애인식 개선 교육’을 실시하였고, 이번에 발간하는 ‘장애인식개선 가이드북’은 그 두 번째 실천이 됩니다.

우리 당은 책자의 발간에만 그치지 않고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과 당직자에게 배포하여 항상 가슴에 새기도록 하겠으며 더 이상은 모르거나 실수로 잘못이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지속적이고 정기적인 교육을 통해 장애인에 대한 감수성을 향상하겠습니다.

국민의 힘은 앞으로도 장애인과 함께하는 정당으로 장애인을 위한 많은 법과 제도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Contents

CHAPTER I

장애인에 대한 이해

1. 장애인의 정의	10
2. 장애인을 보는 시각의 변화	10
3. 우리나라 장애인 현황	11

CHAPTER II

장애인 응대 에티켓

1. 장애인에 대한 기본 에티켓	16
2. 시각장애인에 대한 에티켓	17
3. 발달장애인에 대한 에티켓	18
4. 청각언어장애인에 대한 에티켓	19
5. 지체·뇌병변장애인에 대한 에티켓	20
6. 정신장애인에 대한 오해와 편견	21

CHAPTER III

장애인관련 올바른 용어 가이드라인

1. 부적절한 표현 사례	24
2. SNS 또는 정치적 표현 시 주의사항	28
3. 정치·시사 올바른 표현	29
4. 장애인관련 올바른 용어 가이드라인	30



CHAPTER I

장애인에 대한 이해

1 장애인의 정의

장애인복지법

장애인은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오랫동안 일상 및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장애인이란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

UN 장애인권리협약

장애인이란 다양한 장벽들로 인해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사회에 참여하는 것을 방해받는 장기간의 신체적, 정신적, 지적, 감각적 손상을 가진 사람을 포함

2 장애인을 보는 시각의 변화

개별적(의료적) 모델

- 장애는 개인의 병력에 따른 개개인의 문제
- 바뀌어야 할 대상 : 장애인



사회적 모델

- 장애인에게 부적절한 환경, 편견, 차별 등이 문제
- 바뀌어야 할 대상 : 사회

3 우리나라의 장애인 현황

신체적 장애

외부기능장애

- 지체장애
- 청각장애
- 뇌병변장애
- 언어장애
- 시각장애
- 안면장애

내부기능장애

- 신장장애
- 호흡기장애
- 심장장애
- 장루/요루장애
- 간장애
- 뇌전증장애

정신적 장애

- 지적장애
- 자폐성장애

발달장애

- 정신장애



장애유형별 등록 장애인 수(보건복지부)

※ 2019.12.31 기준

(단위 : 명)

장애유형	인원	비율
합계	2,618,918	100%
지체	1,223,135	47%
청각	377,094	14%
시각	253,055	10%
뇌병변	252,188	10%
지적	212,936	8%
정신	102,980	4%
신장	92,408	4%
자폐성	28,678	1%
언어	21,485	0.80%
장루·요루	15,290	0.60%
간	13,154	0.50%
호흡기	11,522	0.40%
뇌전증	7,054	0.30%
심장	5,266	0.20%
안면	2,673	0.10%



우리는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장애인 인구

262만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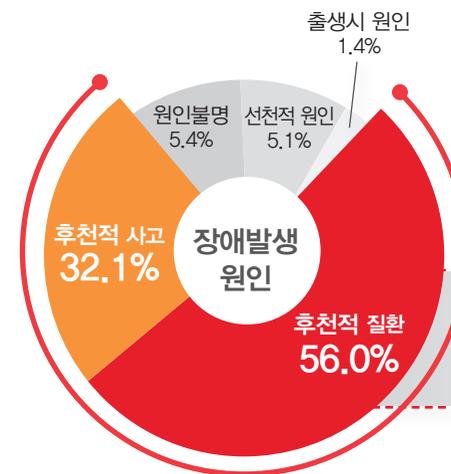
전체 인구의 **약 5%**

6가구 당 1가구



출처 : 보건복지부(장애인등록현황/2019년 12월 기준)

장애, 남의 일이 아닙니다



누구도 장애인이 될
가능성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장애발생 원인 중

**후천적 요인
88.1%**

출처 : 2017년 장애인 실태조사



CHAPTER II

장애인 응대 에티켓

1 장애인에 대한 기본 에티켓



이쪽이 입구예요



도와 드릴까요?



표현방법

- '장애를 앓다'가 아닌 '장애를 갖다'가 바른 표현입니다.
- (무슨장애인지 묻거나) 장애를 갖게된 경우는 묻지 않습니다.
- 비하 발언은 무의식중에 나오므로 항상 주의 합니다.

일상생활

- 도와줄 때 신체적 접촉은 줄이고 피치 못할 신체적 접촉 시 미리 양해를 구합니다.
- 무조건적 도움보다 필요한 부분에 지원하며, 먼저 도움이 필요한지 물어보고, "제가 어떻게 해드리면 될까요?"하고 물어봅니다.

2 시각장애인에 대한 에티켓



함께하는

시각장애인에 대한 에티켓

보행을 도울 때는 갑작스레 옷자락을 잡아 끌거나 어깨를 잡지 않도록 **조심해 주세요.**

안내견을 쓰다듬거나 **음식물을 주지 말아 주세요.**



이야기를 나눌 때는 "저는 000(이름)입니다."라고 말하고, 표정을 밝게하고, **시선을 맞춰서 대화해주세요**

보행을 안내할 때는 시각장애인이 **팔을 잡을 수 있게 반보 앞에서 팔꿈치를 살짝 내밀어 주세요.**



출처 : 한국장애인개발원

3 발달장애인에 대한 에티켓

함께하는

발달장애인에 대한 에티켓



※ 발달장애인은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등을 포괄하는 단어입니다.

공공장소에서 크게 소리치거나,
반복적 행동을 보일 수 있지만
장애특성상 어쩔수 없는 부분이니
이웃을 대하듯 자연스럽게 대해주세요



발달장애인의 나이에 맞게 존칭해주시고,
이름을 불러주면 좋아요.(000씨)

함께 일을 할 땐 그들이 잘 해 낼 수 있도록
(기다려주고) 격려(와 응원)해주세요

발달장애인과 대화할 때는
쉬운 말로 된 짧은 문장을 천천히!
그리고 말을 끝까지 경청해 주세요.

출처 : 한국장애인개발원

4 청각·언어장애인에 대한 에티켓

함께하는



청각·언어장애인에 대한 에티켓



나의 말을 듣지 못한다고
해서 반말을 하는 것은 No!
예의를 지켜주세요.

한국수어를 모를땐 필담이나 제스처로 대화를 시도해 주시고,
의사소통이 어려울 때 수어통역사에게 수어통역을 요청하세요.



글로 대화를 나눌 때는 가급적 명확하고 간결하게 써 주세요.

고개를 끄덕인다고 모두 알아들은 것은 아니에요.
중요한 내용은 확실히 전달되었는지 확인해 주세요.

중요한 전달사항은 메모나 게시판을 사용하여
전달이 잘 되도록 해주세요.

출처 : 한국장애인개발원

5 지체·뇌병변장애인에 대한 에티켓

함께하는

지체·뇌병변장애인에 대한 에티켓 



이동을 도울 땐 편의시설과 이동 동선 등을
미리 확인하시는 것이 좋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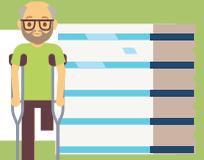


뇌병변 장애인이 넘어졌을 때
함부로 일으켜 주는건 오히려 위험할 수 있어요.

도움을 주려는 경우에
어떻게 도와주면 좋을지 꼭 물어봐 주세요



보조기기는 함부로
만지거나 이동시키지 않아요.



편의시설은 장애인이 먼저 사용할 수
있도록 양보해 주세요.



출처 : 한국장애인개발원

6 정신장애인에 대한 오해와 편견

- 정신질환, 정신장애인은 위험한 사람이 아닙니다.
 - 전체범죄(정신질환 0.136% vs 비정신질환 3.39%)
- 꾸준한 약물치료를 통해 일상생활이 가능합니다.
- 누구나 정신과 관련한 질환을 경험 할 수 있습니다.
 - 우리나라 주요정신질환 평생 유병률25%(보건복지부 2017)

 정신질환(장애)에 대한 오해와 편견에 대한
장애인 당사자의 생각

- 1 **위험하고 사고를 일으킨다.**
증상에 빠져있을 경우 다소 힘들지만 긍정적인 사람도 많고, 위험하다는 것은 단편적인 얘기이다.
- 2 **이상한 행동만 한다.**
우리가 보통 알고있는 정신질환은 단편적인 증상만 있지 않다. 이상한 행동이라는 기준이 모호하다. 물론 일상생활도 충분히 영위가 가능하다.
- 3 **낯지 않는 병이다.**
의사와의 협조적인 관계로 증상이 나아 질 수 있고, 약부작용 또한 약을 조절하여 줄일 수 있다.
- 4 **유전된다.**
환경적, 기질적, 유전적 등 여러 요인으로 생기는 복합성 질환이다.
- 5 **특별한 사람이 걸리는 병이다.**
정신질환의 발병률은 특정 계층과 연관성이 적다. 최근에는 환자수가 증가 추세이다.
- 6 **격리 수용해야 한다.**
증상이 심할 때는 일반인들이 휴가를 갖는 것처럼 잠시 안정을 취하면 된다.
- 7 **대인관계가 어렵다.**
정신장애인도 무엇이든 도전할 수 있고 그와 더불어 충분히 인간관계를 이어나갈 수 있다.
- 8 **직장생활을 못한다.**
직장 생활을 유지하시는 분도 많다. 일 할 수 있는 직종이 제한적일 뿐이다.
- 9 **운전·운동을 못한다.**
운전이나 운동을 못한다는 기준 자체가 모호하고 시도할 수 없도록 제한을 두어서 정신장애인이 운전이나 운동을 못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당사자도 신체관리를 위해 운동을 한다. 면허증을 가진 사람도 있고, 실제 안전하게 운전하는 사람들도 있다.
- 10 **나보다 열등한 사람이다.**
각자가 다르듯이 정신장애인도 자신만의 장점을 충분히 살릴 수 있다.

출처 : 사랑사랑양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



CHAPTER III

장애인관련 올바른 용어 가이드라인

1 부적절한 표현 사례

장애인을 비하하는 혐오 표현을 하는 경우

“그래도 이 정부는 경제가 잘 돌아가고 있다, 그게 **제 정신**입니까”

“권력에 **눈먼 자들이** 제 구실을 못해”

“국민을 **저능아**로 만드는 어용 여론 조사를 규탄하자”



상대방의 부적절한 발언을 비판하면서 똑같은 표현을 쓰는 경우

(사례 1)

- **장애인 비하발언** : “선천적인 장애인은 어려서부터 장애를 가지고 나와 의지가 약하다고 하더라.”
- **비하발언에 대한 비판** : “몸이 불편한 사람이 장애인이 아니다”, “삐뚤어진 마음과 그릇된 생각을 가진 사람이야말로 장애인이다.”

(사례 2)

- **장애인 비하발언** : “우리가 더 깊이 생각해야 할 사람들은 정신장애인”, “신체장애인보다 더 한심한 사람들은... 정치권에서 보면 정상인가 싶을 정도로 정신장애인들이 많이 있다. 그 사람들까지 우리가 포용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고 생각한다”
- **비하발언에 대한 비판** : “자기들은 야당 보고 그걸 말이라고 했는지 모르나 국민들은 그 말을 한 사람을 정신 장애인이라고 말하고 있다”

속담이나 관용어구를 부주의하게 사용하는 경우

- “군당국, 또 **눈 뜬 장님**이었다면 큰 문제.”
- “모니터 요원들 예산에 반영하겠다. **눈 뜬 장님**을 왜 놔두냐”
- “핵실험 3년 주기설에 따라 그 어느 때보다 핵실험 가능성이 큰 시기였는데 **눈뜬 장님마냥** 구경만 하고 있었다.”
- “시치미 딱 떴고, **꿀먹은 병어리**가 따로 없다.”
- “000 청장을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000 대표를 비롯해 당당하게 나오더니 000의 지적이 있었는지 몰라도 갑자기 **꿀먹은 병어리**가 됐다”
- “전직 00부 사무관의 000 사장, 00신문 사장, 국제발행 관련 발언은 **장님이 코끼리 다리만지듯** 일부분만 보고 전체를 안다는 식의 어리석음을 드러낸 것”

상대방을 비난하며 ‘장애인’으로 표현하는 경우

- **‘정신이상자’** 000 씨를 감정해 정신병원에 수감시키고 (5·18을 폄훼한) 3인 의원을 즉각 출당조치하고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제소에 즉각 동참해야 한다”
- “경제부총리가 금융 부분을 확실하게 알지 못하면 정책 수단이 **‘절름발이’**가 될 수밖에 없다”

농담 또는 심정의 표현 방법으로 장애인을 비하하는 경우

- “50살까지 결혼을 못 했는데 결혼을 하고 나서야 **‘특급장애인’** 위치에서 벗어났다”
- “요즘 **병어리처럼** 삽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14년 ‘귀머거리’, ‘병어리’, ‘장님’, ‘절름발이’, ‘정신박약’, ‘불구자’ 등을 ‘장애인에 대한 고정관념이나 편견을 강화할 수 있는 용어’로 규정하며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한 바 있음.



SNS 또는 정치적 표현에 있어서 주의해야 할 사항

- 1** 장애인 차별 발언은 무의식중에 나오니 평소에 무의식적으로 사용하는 ‘언어표현’이나 ‘말’이 차별을 심화시키지 않는지 주의합니다.
- 속담이나 관용어구에도 부적절한 표현이 다수 있습니다.
- 2** 차별의도 없이 장애인 차별 표현을 썼더라도 당사자는 마음의 큰 상처를 입게 된다는 것을 명심합니다.
- 3** 장애는 유형마다, 개인마다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동일시 하지 않습니다.
- 4** 장애를 질병으로 비유하지 않습니다.
- 5** 장애를 부정적이거나 사회대중과 구별되는 집단으로 인식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 ‘불굴의 의지를 가진 000(장애인)’, ‘장애에도 불구하고’, ‘육체적으로 불편한’, ‘불구의 몸으로’, ‘정신적으로 다른’, ‘괴로운’, ‘고통을 받는’, ‘희생자’, ‘정상이 아닌’, ‘일반과 다른’ 등의 표현은 장애인을 이질적인 존재로 차별화 하는 인상을 줍니다.
- 6** 장애인과 비교하여 자신에게 장애가 없음을 ‘다행이다’라거나 ‘행복하다’라고 느낀다는 표현을 하지 않습니다.
- 7** 행동의 원인을 지적할 때 ‘우울증’, ‘조울증’과 같은 진단명이나 ‘정신질환’이란 표현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2 SNS 또는 정치적 표현 시 주의사항

부적절한 표현	대체 표현
장애를 앓다	→ 장애를 갖다
절름발이 ○○	→ 불균형적인 / 조화롭지 못한
귀머거리 삼년 병어리 삼년	→ 인내의 시간을 보내고
꿀 먹은 병어리	→ 마음속에 있는 / 생각을 말하지 못하는 / 말문이 막힌 / 말을 못하는
병어리 냉가슴 앓다	→ 마음속에 있는 생각을 말하지 못하는 / 가슴앓이하다
장님 코끼리 (다리)만지기	→ 일부만 알면서 전체를 알듯이 / 주먹구구식
눈 뜬 장님	→ 무엇을 보고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
눈먼 돈	→ 대가없이 얻은 돈임자(주인)없는 돈
외눈박이의 시각	→ 왜곡된 시각 / 편파적인 시각
외눈박이 방송	→ 편파 방송
병어리장갑	→ 손모아장갑 / 엄지손장갑
정신분열증	→ 정신장애
깜깜이 회계	→ 확인불가능한 회계 / 알 수 없는 회계

출처 : 장애인먼저 실천운동본부

3 정치 · 시사 올바른 표현

바른표현

내용	바른표현
미사일 도발에 대해서는 병어리가 됐다	→ 미사일 도발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말이었다.
○○○ 지지자들은 꿀 먹은 병어리네요	→ ○○○ 지지자들은 아무런 말도 못하고 있다
예산안을 뒷받침할 법적 근거인 부수법안 처리를 하지 않은 완전 절름발이 날치기	→ 예산안을 뒷받침할 법적 근거인 부수법안 처리를 하지 않은 완전 하자투성이 날치기
절름발이 총리 이고 후유증이 엄청난 것이죠	→ 인정 못 받는 총리 이고 후유증이 엄청난 것이죠
척수장애를 앓고 있는 사람	→ 척수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
달을 가리키니 손가락만 쳐다보는 '외눈박이' 세상 이 됐다	→ 달을 가리키니 손가락만 쳐다보는 '왜곡된 시각' 만 넘치게 됐다
정치권에서는 말하는 것 보면 정상인가 싶을 정도로 정신장애인이 많이 있다	→ 정치권에서는 말하는 것 보면 비정상적인 사람들이 많이 있다

부적절한 발언

내용	이유
장애 때문에 / 장애로 인해 / 장애에도 불구하고 / 비록 장애는 가졌지만 / 장애를 극복하고	→ 장애를 부정적으로 인식하거나 사람보다 장애에 초점을 맞추게 됨
뇌성마비 환자 / 다운증후군 환자 / 정신지체 환자 / 자폐증을 앓다	→ 장애는 질병이 아닌 질병의 후유증상이므로 장애인을 환자로 표현하면 안됨
삐뚤어진 마음과 그릇된 생각을 가진 사람이야말로 장애인이다	→ 어떠한 부정적인 생각이나 행동을 하는 사람을 장애인으로 지칭

출처 : 장애인먼저 실천운동본부

4 장애인관련 올바른 용어 가이드라인



과거용어	비하용어	자제용어	법적용어 (올바른 용어)
		정상인 / 일반인	→ 비장애인
장애자 / 심신장애자	애자 / 불구자 / 병신 / 불구		→ 장애인
맹인	애꾸눈 / 외눈박이	장님 / 소경 / 봉사	→ 시각장애인
	귀머거리		→ 청각장애인
	말더듬이 / 벙어리		→ 언어장애인
	언청이		→ 안면장애인
정신지체인 / 정신박약자	백치 / 저능아		→ 지적장애인
지체부자유자	진따 / 절름발이 / 앉은뱅이 / 불구자 / 꼬추		→ 지체장애인
간질장애인			→ 뇌전증장애인

출처 : 장애인먼저 실천운동본부

〈참고문헌〉

- 국가인권위원회, 2020,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집(2019)
- 국가인권위원회, 2019,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집(2018)
- 국가인권위원회, 2018,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집(2017)
- 국가인권위원회, 2018,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차별 결정례집(2010.10.~2017.12.)
- 국가인권위원회, 2011, 언론인을 위한 장애인권 길라잡이
- 국가인권위원회, 2012, 정신장애인 차별·편견 해소를 위한 실태조사
- 방송통신위원회, 2019, 온라인법 상 혐오표현 유통방지를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 연구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2019, 직장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강의 자료
- 한국장애인개발원, 2019, 함께하는 장애인에 대한 에티켓 인포그래픽
- 한국장애인개발원, 2019, 장애인식개선교육 카드뉴스
- 한국장애인재단, 2016, 장애인 인식개선사업 강사양성통합교재
- 장애인먼저실천운동본부, 2021, 2020년 모니터 보고서 '장애인과 의사소통'
- 장애인먼저실천운동본부, 2020, 2019년 모니터 보고서 '장애인과 4차 산업혁명'
- 장애인먼저실천운동본부, 2019, 장애인관련 올바른 용어 가이드라인
- 장애인먼저실천운동본부, 2019, 장애인먼저실천 100대 에티켓
- 장애인먼저실천운동본부, 2020, '21대 총선' 장애용어 바르게 사용합니다.

발행처 : 국민의힘 중앙연수원

발행일 : 2021년 12월